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en.org
일어판 gpnewsjp.org
중어판 gpnewsch.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2. 11 ~ 2024. 3. 2 제295호

파키스탄, 종교 자유 한 걸음... 이슬람 학습 의무화 해제

파키스탄에서 비무슬림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에서 이슬람을 공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독교 학생들은 파키스탄의 기독교인 순교의 역사를 배우게 됐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 컨선(ICC)에 따르면, 연방 교육 전문 훈련부는 올초, 2024~2025학년도부터 새로운 교과과정을 도입해 기독교 학생의 이슬람 학습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종교를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으로 신성모독법, 폭도들의 폭력, 강제 결혼과 개종에 시달리는 파키스탄

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작은 승리다.

기독교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에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핵심 기독교 사상, 교회사, 영감을 주는 기독교 인물에 대한 포괄적인 학습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또한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의 영향력, 특히 사도 로마의 사역과 남아시아에 대한 그의 사역을 공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과과정에는 순교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수업도 포함됐다. 기독교 학생들은 2011년 파키스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 살해당한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장관 사바즈 바티와 같은 신앙의 영웅에 대

해 배우게 된다.

파키스탄 소수종교교사협회의 안준 제임스 폴 회장은 “지난 20년간 공평한 교육을 위해 싸워온 파키스탄 소수종교 교사들에게 이번 판결은 큰 승리다. 여러 정부, 기관, 상급 법원에 호소해 온 끝에 파키스탄 정부는 마침내 소수종교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슬람을 강제로 배우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교과과정은 파키스탄의 소수종교인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지만,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파키스탄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국가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새 교과과정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받고 기독교 연구 교과서가 승인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ICC는 이를 통해 무슬림 학생과 교사, 행정가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GPNEWS]



제공: 파키스탄의 키프로 소망 공동체



“열방에서 예배와 교회의 회복에 저를 사용해주세요”

5살 때 병상에서 죽어가던 작은 소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다. 아직 병약한 그에게 하나님은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다. 아무런 재능이 없다는 그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름과 존재가 예배가 된 방에배 선교사를 인

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78)

불순종이 바로 '죄'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죄라고 해도 사실 별것 아니잖습니까? 기껏해야 열매 하나 먹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 기껏해야 열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커다란 장애물을 두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이상 더 쉬울 수도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 오히려 이 시험은 사람이 참으로 사람임을, 즉 자유롭게 선택할 의지가 있는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험이었다.

어떤 젊은 여성이 대단히 멋진 남자를 만났다. 그 남

자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아플 때는 위로해 주었고, 대화할 때는 함께 웃었고, 늘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는 그만 그 남자가 정신적 장애인으로서 전혀 자기 선택의 의지가 없이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하도록 프로그램이 입력된 것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남자는 단지 주어진 것만 수행하는 로봇 같은 존재였다. 그 사랑은 조작된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실망과 허탈감뿐이었다. 이렇듯이 사랑이란 완전한 선택의 자

유, 바로 자유 의지를 전제로 한다.

지금 사람에게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 선택은 지극히 쉽고 단순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바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의 차이다.

그 선택이란 : 먹느냐, 먹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바로 이 선택의 자유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은 진정으로 사람다울 수 있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다. 사람은



일러스트=김경선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이다. 아담과 하와와 사랑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선택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진실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선택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불완전한 이란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다. 성경은 불순종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불순종, 이것이 바로 '죄'이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등영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마다가스카르, 55만 명 어린이 영양실조



▲ 야외에서 나눠준 식사를 하는 마다가스카르의 아이. 제공: WMM

몇 살쯤 됐을까? 한두 살 정도의 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야무지게 손가락을 잡고 그릇에 담긴 밥을 떠먹고 있다. 식탁이라고는 야외에 펼쳐진 계단이 전부. 앞에 앉은 언니는 힘 없이 한 수저를 뜨고 있다. 이 아이들은 무슨 사연으로 이곳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걸까?

마다가스카르에는 장기간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홍수와 사이클론, 전염병이 남부

와 남동부 지역 사람들에게 영양을 미치고 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내부 이동이 증가하면서 학업을 중단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났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2024년에 남부와 남동부 지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3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약 55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를 경험할 것이며, 이 중 11만 4000명은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주님만 의뢰하는 마다가스카르의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피난처요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시 91:1~2) [GPNEWS]

美 캘리포니아 초교, ‘방과후 사탄클럽’ 모임 앞두고 기독교 학부모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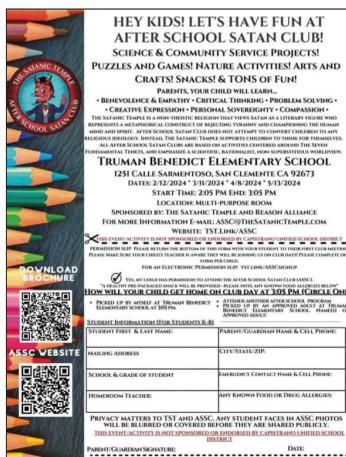
미국 사탄교가 주관하는 방과후 사탄클럽이 캘리포니아 샌 클레멘테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2월 중순 첫 모임을 앞두고 있어, 기독교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다.

본지 통신원에 따르면, 사탄교는 이 지역 트루먼 베네딕트 초등학교에서 ‘과학 및 지역사회 봉사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방과후 사탄클럽을 오는 2월 12일 시작한다고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모집 전단지에서 “사탄클럽은 사탄을 무신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며 퍼즐과 게임, 자연 활동, 예술과 공예, 간식과 많은 재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7가지 기본 교리를 중심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주의적이며 미신적이지 않은 세계관을 강조하며, 어린이들을 어떤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개종시키려는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학교 기독교 학부모들은 사탄클럽 모임의 유해성을 제시하

며 허용하지 말도록 학교에 요청했으나 학교 측이 법적으로 모임을 막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탄교는 그동안 한 기독교 단체가 주관하는 굿뉴스클럽이 있는 학교를 지목해 그곳에서 사탄클럽 모임을 주관하며, 학교 측에서 제동을 걸면 각종 소송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법률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해 왔다.

1920년에 헬렌 켈러 등이 참여해 미국 내 사회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ACLU는 그동안 유색인종이나 여성, 수감자, 장애인,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 각종 소수자들을 지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왔는데, 최근에는 테러리스트의 인권보호까지 요구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펜실베이니아에서 사탄클럽 모임을 금지한 한 중학교에 대해 소송을 제기, 법원이 모든 사람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사탄클럽의 손을 들어주며 관할 교육부에 2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 ‘사탄클럽’ 모집 전단지.

결정하기도 했다. 통신원에 따르면, 현재 트루먼 베네딕트 초등학교에 복음을 전하는 굿뉴스클럽이 개설돼, 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이 학교 학부모 등 30여 명은 최근 학교 주위를 돌며 땅밧기 기도를 하는 등 예정된 날짜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함께 기도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멕시코, ‘마약 펜타닐 소비 금지’ 헌법에 추가

멕시코 정부가 치명적인 마약 펜타닐 소비를 금지하는 내용을 헌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연합뉴스가 지난달 27일 전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마약류, 특히 펜타닐과 같은 합성 마약 소비를 차단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화학 약물은 국민 삶과 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소비를 장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정부는 다음 달 중 의회에 관련 개헌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멕시코 당국이 돈 벌이가 아닌 국민의 건강한 삶을 선택하고 나라를 살리는 결정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멕시코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육신의 정욕에서 돌이켜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대만, 동성 결혼 합법 이후 동성 커플 2만 5000명으로 급증

대만이 2019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동성 결혼자가 2만 5000여 명으로 급증했다고 지난달 30일 대만 언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 동성 결혼자가 2만 5716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 7748명, 1만 7968명이다.

부끄러운 욕심으로 순리를 역리로 바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대만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韓 1인 가구 78.8% ‘고독사 위험군’... 자살계획 18.5%

우리나라 1인 가구 947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8.8%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위험군의 대다수 직업은 임시·일용직(50.7%)이며, 63%는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이 중 18.5%는 1년간 자살계획이 있었고, 6.4%는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었다. 고독사 수는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등으로 5년간 평균 8.8% 늘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가 서로 동거함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안식을 얻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4년 2월 12일 ~ 2024년 3월 2일

- 매주 월-금(09~17시) ▶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 월-금(18~20시) ▶ 전남 신안 / 임태중부교회, 화(10~12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화(13~16시) ▶ 서울 종로 / 초대교회, 목(20~22시) ▶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 금(10~12시) ▶ 경기 광주 / 창대교회, 금(10~17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 금(15~20시), 주일(15~17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2월 12일 ~ 2월 17일 2.15(0시)~16(24시) ▶ 강원 속초 / 동명교회, 그 외 3교회 진행중.

2월 19일 ~ 2월 24일 ▶ 경기 성남 / 문광교회, ▶ 경남 통영 / 두미교회, ▶ 부산 사하 / 영원간병회, 2.19(11시)~2.21(18시) ▶ 인천 연수 / 열방드림교회, 2.19(14시)~2.20(14시) ▶ 인천 서구 / 사랑교회, 2.21(0~24시) ▶ 부산 해운대 / 수영로교회, 2.21(21시)~2.24(18시) ▶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 2.23(19시)~2.24(8시) ▶ 서울 영등포 / 여의도소망교회, 2.24(0~24시) ▶ 울산 북구 / 우정교회, 2.24(09~18시) ▶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 2.25(12~24시) ▶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 그 외 3교회 진행중.

2월 26일 ~ 3월 2일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2.26~28(10~16시) ▶ 서울 마포 / 금강아산병원, 3.1(0~24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 3.1(12시)~2(12시) ▶ 대구 중구 / 서현교회, 그 외 3교회 진행중.

기도 참여 문의 | 010-9440-4365(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 담당자)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과 비무슬림, 어떻게 핍박받고 있나

인터소사이어티, “무슬림 정권 8년간 기독교인과 비무슬림 10만여 명 사망”

나이지리아 중부에서 무슬림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 부족의 유혈 충돌로 최소 55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에서 두 집단의 충돌에 대한 배경과 정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동안 나이지리아의 집단 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주로 기독교인이었으나, 이번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무슬림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지난 한 해 동안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무슬림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한 국가로, 오픈도어 선교회를 비롯, 미국 종교자유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되어 있다. 나이지리아의 대표적인 인권 및 민주주의 연구 단체인 국제 시민자유와 법치주의협회(이하 인터소사이어티)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하루 35명의 시민들이 무법적인 상태에서 사망하고, 나아가 월평균 1050명, 연평균 1만 2500명, 총 10만여 명의 시민이 공정하고 증거에 의한 재판 없이 치명적인 고문을 당하며 사망하고 있다. 2015년은 무하마드 부하리 전 군부 통치자가 범진보의회당(APC) 소속으로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해다. 이 같은 대규모 사망자 가운데는 지하드 풀라니족 목동과 지하드 풀라니족 무장집단의 학살 또는 테러에 의한 희생자가 포함되어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사망, 고문, 납치, 실종된 피해자의 약 70%

가 동남부, 남부, 중부 지역의 기독교인 및 비무슬림이다. 더욱이 이들 기독교인 및 비무슬림 희생자들이 신앙과 민족을 이유로 나이지리아 보안군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인터소사이어티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보안군이 비무슬림 시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체포, 납치하는 보안작전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2015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대통령으로 집권한 퇴역 장군인 무하마드 부하리 정부 기간 자행된 급진적인 정책으로, 일상적인 잔인한 살육으로 이어졌다. 부하리 전 군부 지도자는 1983년 쿠데타를 통해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뒤, 구정권 인사에 대한 군사재판, 국민기강 확인 운동 등을 통해 재판절차 없이 인신을 무기한 구속하는 비상조치 등을 단행하다 1985년 또 다른 군 출신 인사의 쿠데타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다. 이러한 부하리 정권에 의해 나이지리아에서 ‘국가 지하드 프로젝트’가 자행됐으며, 이때 기독교인과 비무슬림 시민들이 대거 살육당했다고 인터소사이어티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 행태는 그 이후에도 이어져 2023년 말 크리스마스 이브(12월 24일과 25일 사

이)에도 기독교인 수백 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원 지역에서 16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학살되고, 보코스 지방정부 지역에서 90명 이상의 무방비 상태의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70명 이상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이들은 저항할 기회도 없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나이지리아 당국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160명 이상이며 300명 이상의 부상자와 20개 이상의 마을이 공격을 받았고, 보코스에만 221채의 집이 불에 타거나 무참히 파괴됐다. 이 또한 풀라니 지하디스트와 이들과 공모한 보안 책임자 및 요원, 특히 나이지리아 군대와 경찰, 국가안보국 요원들의 소행이라고 인터소사이어티는 주장하고 있다. 인터소사이어티는 이 같은 크리스마스 박해 사건도 풀라니 지하디스트의 보복 살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앞서 2023년 12월 3일 카두나주 투둔베리에서 이슬람 축제 참석자 120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이후 크리스마스 무렵, 정부 보안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 풀라니 지하디스트들은 기독교인들을 마음대로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불태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에서 ‘지하디스트 풀라니 목동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기독교인 100명을 죽이는 것이 낫다.’



▲ 나이지리아 플레토주의 한 마을. 출처: Unsplash의 Tomiwa Ogunmodede

는 말이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인터소사이어티는 말한다. 인터소사이어티는 2015년 중반 이후 주로 무슬림으로 구성된 나이지리아의 정책 입안자들이 종교의 자유는 물론 생명권, 인간의 존엄성, 집회 결사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많은 군사주의와 법률을 제정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8년 4개월 동안 나이지리아의 시민 10만여 명이 나이지리아 보안군(경찰, 군대 등)의 손에 무법적으로 살해당했다. 이 기간 동안 28건의 주요 잔학행위 사건에서 수만 명이 고문을 당하고 불공정한 비밀 재판을 통해 수천 명이 구금, 납치 및 감금 중 행방불명됐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정부의 보호를 받는 지하디스트 풀라니에 의해 45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동남부의 이그보족 기독교인 가운데 최소 1000명의 행방이 묘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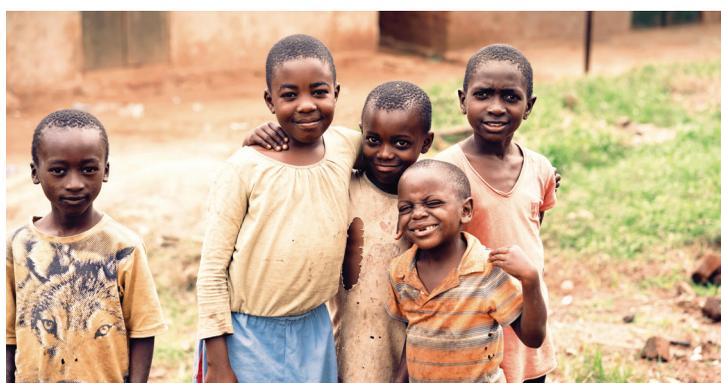
상태다. 이들은 보안군의 납치 및 실종 또는 구금, 비밀 살해의 희생자가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그보족 기독교인들은 당시 아무런 관련 없는 ‘비아프라 테러 연루’라는 정체불명의 혐의를 받고 비밀리에 수사, 기소, 선고, 석방을 경험해야 했다. 인터소사이어티는 이 같은 나이지리아의 상황이 개선되려면, 정부와 보안군 및 관련기관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안보와 안전’으로 회복돼야 하며, 분열적이고 차별적인 경향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나이지리아 기독교 협회(CAN)를 즉각 해산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기독교 신자, 예배당 및 그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독교 협회가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GN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나이지리아, 난민 캠프에 다음세대 위한 ‘희망의 집’ 개원

나이지리아에 난민 어린이를 위한 학교와 건물이 지어져 이들이 더 나은 삶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년간 나이지리아 국내실향민(IDP) 캠프의 주민들과 함께 해온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은 캠프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사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희망의 집 아카데미’를 IDP 캠프 안에 최근 개원했다. 희망의 집 아카데미는 나이지리아 베누에주에 거주하는 약 1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풀라니족 무장 세력의 잔인한 공격으로 인해 난민이 됐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빼앗긴 이 난민 가족



출처: Unsplash의 Danique Godwin

들은 실향민 캠프에서 생계와 기회 상실과 싸우며 어둠의 그늘로 밀려났다. 농업에 종사하던 이들 특히 학령기 아동들은 생계를 위해 구걸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마을에서 한 끼 식사를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 ‘희망의 집’과 같은 시설 등

장은 필수 학용품과 교통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매일 점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한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IDP 캠프의 나이 가브리엘 회장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일”이라며 “여러분이 우리에게 해준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

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희망의 집 아카데미가 생기기 전에는 캠프의 교육환경이 열악했다. 예산이 부족한 외딴 학교 건물은 낡고, 교사도 부족했다. 새로운 시설은 교사들에게 노트북, 화이트보드, 책상, 적절한 교재와 같은 필수 자원을 제공하면서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현재 희망의 집 아카데미는 15명의 전담 교사와 초등학교 1~6학년울 아우르는 종합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39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엠마누엘 무사 삼디 박사는 “IDP 학교는 버려진 프로젝트에서 지역 사회에서 부러워하는 프로젝트로 성장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고백했다. 희망의 집 아카데미의 열망은 학업 성취를 넘어선다. 삼디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 학

교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그들이 겪고 있는 핍박에 맞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지도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에 대한 빛나는 간증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가 베누에주에 있는 모든 난민 학교의 표준이 되고, 모든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 후에 이 학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공동체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ICC는 나이지리아의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계속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GNNEWS]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예배자를 세우는 방예배 선교사 (카자흐스탄)



• 1면에 이어
방 선교사는 올해 초 K국에서 러시아어로 진행된 복음캠프에서 예배 인도를 섬겼다. 그는 러시아어가 아닌, 카자흐스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만,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러시아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뿐이었다. 언어에도 구애받지 않는 예배. 모든 민족과 방언이 주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찬양이 이런 것일까? 막 예배를 섬기고 내려온 그를 무대 뒤 진행부실에서 만났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방예배 선교사입니다. 중앙아시아의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찬양팀을 훈련하는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찬양과 예배로 섬길 수 있게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이곳에서 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계속 그분들을 찾아가서 차 마시면서 교제하고, 시간 있으면 만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면서 교제를 했어요. 한 달에 한번 모여서 놀고 먹고 쉬는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연합을 하라는 마음을 함께 갖게 됐어요. 그동안 교제하면서 예배자를 세우고 싶은 마음을 나누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사역을 같이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찬도스라는 팀이 탄생한 거죠. 찬도스는 ‘영혼의 단짝’이라는 의미의 카자흐어예요. 각자가 하는 사역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돕고 지원하면서 서로를 도왔어요. 지금은 예배가 있는 어느 곳이든 가서 섬기고, 예배자들을 훈련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해도 주님 것입니다.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적으로 저의 병이 낫고 회복이 됐어요. 의사도 기적이라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제게 그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OO아, 너는 하나님이 살려 주셨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어머니가 집에서 피아노를 치시면 저를 부르시고 옆에 앉히고 찬양하자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내가 찬양하면 엄마는 힘이 난다.’며 늘 격려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린 제게 큰 힘이 됐어요.”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의 마음을 품다

- 어머니와 함께 찬양하는 삶이 시작된 거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형이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저의 그 이야기를 들은 누나가 ‘네가 무슨 찬양 인도자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때는 정말 어렸고 노래할 줄도 몰랐으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방 선교사는 복음캠프 예배 인도를 섬기며 같이 찬양팀을 섬기는 청소년들을 보며 자신의 옛 모습이 생각났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 했던 자신을 회상하며,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많이 성장시켜 주셨구나. 예배자로 만들어주셨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생 선교단체를 섬겼어요. 여름 수련회 때 1만 명씩 모이는 단체인데, 그러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때 저를 학생 찬양단 리더로 세워주셔서 찬양 인도로 섬기며 하나님이 예배자로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 콜링 시간에 응답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 아들이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는데, 그때 선교를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됐어요. 그때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며 전공을 선택할 때, 러시아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곳에 오시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겠죠.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09년에 카작으로 단기선교를 오게 됐어요. 그게 만 24살이네요. A지역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음악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타와 노래를 가르치고, 친구를 사귀고 전도도 했어요. 카작인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카작 음식을 먹으면서 언어를 배웠어요. 카작에서 알게 된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친구가 있어요. 세르게이(가명)라는 친구죠. 제가 가르치던 음악학교 건너편 문구점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악보를 복사하기 위해 자주 문구점에 다니면서 친구가 됐어요. 그는 신실한 무슬림이었어요. 목에 코란을 메고 다니고 하루에 5번 기도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팀이 우리 도시를 방문했어요. 한 주 동안 한국어와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하고 마지막 날 복음 프로그램에 참석했어요. 마지막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세르게이가 중간에 나갔어요. 이 사람들을 신고 하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너를 존중하지 못했다.’며 말리느라고 혼이 났어요. 얼마 후 저는 단기선교사 과정이 끝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세르게이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책자를 선물해 주고 편지 한 장을 써주고 왔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할 거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친구다.’”

주님의 때에 현직인의 회심을 보다

- 세르게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한국에 돌아와 결혼을 하고, 가장 먼저 아내에게 카작을 보여주고 싶어 A지역으로 갔어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세르게이도 나왔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세르게이가 다가와서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힘이 들었을 때, 예수 믿는 친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평안을 주실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평안을 주셨다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카작으로 초청했어요. 주님의 사인으로 받고 그렇게 아내와 교단 선교 훈련을 받고 2015년에 카작으로 오게 됐어요.”
- 그런데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결혼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20살 때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당시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 사랑을 주려고 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실을 알고 공항 가는 내내 교제를 했어요. 제 간증과 은혜를 나누고 헤어질 때 제가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이후 동갑내기 친구로, 서로 기도로 응원하는 사이가 됐어요. 7년 동안 멀리서 응원하는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제가 카작으로 단기선교를 나올 때, 아내가 저를 후원해줬어요. 카작에 있으면서 장기선교사로 살고 싶은데, 저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으면서 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때 아내가 소셜미디어로 제게 보낸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잘 지내나. 기도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그걸 사인으로 받고 한국에 돌아가면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서 아내를 만나 교제하던 중, 아내가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 자매를 구원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학교로 찾아가서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거절을 하더군요. 그래도 기도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때 아내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때 아내도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지만, 기분이 안 좋았대요. 제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주님의 강권적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GNNEWS]



▲ 예배학교를 섬기고 있는 방예배 선교사. 제공: 방예배 선교사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예배는 찬양과 말씀뿐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예배자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세우고 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단순히 주일 예배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선교 완성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이 일을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자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응답해 주셨어요. 함께 교제하던 4명의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찬도스라는 팀을 만들게 됐어요.”

‘영혼의 단짝’이라는 동역자들을 만나다

- 찬도스라는 팀은 어떤 팀이죠?
“제가 처음 카작에 왔을 때, 저 연배의 젊은 사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제할 만한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후 기도 응답처럼 한 가정적 카작에서 만나게 됐어요. 모두 소속 교단은 달랐어요. 그 말은 여러 가지 생각과

- 어떻게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1학년 때 제가 카작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어요. 그 무렵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선교할 마음을 품게 됐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 예배해라.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해라.’ 이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럼 나는 중앙아시아에 가서 예배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어요. 그때 이름도 ‘예배’를 사용하게 됐어요.”

- 매우 단순한 순종이었네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기에 그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5살 때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작은 아이였어요. 의사는 가망이 없다며 어머니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 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데려가셔도 주님 것이요, 살리셔서 뉘 일을



▲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공: 방예배 선교사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Y.K.



인도 빈민식당의 두 소녀



▲ 빈민식당을 찾은 현지 아이들. 왼쪽에서 두 번째 여자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소녀. 제공: 원정하 선교사

오늘은 동료 선교사의 아들들을 데리고 봄베이 빈민 자선 식당으로 출동했습니다. 이곳에서 평소처럼 많은 분들에게 식사와 절제회 전도책(금주금연 팸플릿+만화전도책자+겜 세 통)을 나누던 중, 기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늘 굴다리 밑에서 맨살로 흙바닥에서 거칠게 먹고 살던, 그

리고 아무 날 아무 시간에 와도 근처에 있다가 빈민식당에 들어 오던 한 아이가 예쁜 교복을 입고 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쓰레기통에서 주워 입기라도 한 것인가 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목에 아이다가 걸려 있고 이 아이의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던군요. 목이 확 막힐 정도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

는 최소한 걸이나 매춘녀가 되지는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왔고 앞으로 전달할 만화전도책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홉 살인 이 아이의 지난 2년여의 성장기 중 영양 섭취, 특히 단백질 섭취의 큰 부분은 이 빈민식사 사역을 통해 공급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 식비로 인한 지출이 줄어들어, 부모도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학교를 본격적으로 다니며 성장해 가면서 이곳에 올 날도 점점 줄어들텐데, 더욱 부지런히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역시 저랑 밥을 먹는 여아 중 키가 커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런데 오늘 보니 아무래도 임신한 티가 납니다. 이 아이의 사진은 게시물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누더기를 입고 어린 시절을 굴다리 밑에서 보내다가 막 키가 자라고 몸이 예뻐지려는 시점에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된 듯합니다. 장난감을 갖고 놀며 어린 아이들과 재잘거리는 걸 보면 그냥 키 좀 큰 어린이 같은데 말이지요.

함께 갔던 고1, 중3인 선교사 자녀들보다 확실히 어린 아이의 배가 확연하게 볼록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식당에서 장난감과 절제회 전도책, 삶은 계란 열 개만 받았을 뿐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다만, 제가 잘못 본 것이거나 기생충이나 복부비만 등이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계속 이곳을 다니고 만나다 보면 확실히 알게 되겠지요. 길거리 아이들에게는 드문 일이 아니니 속상할 뿐입니다.

빠르면 만 열다섯 전에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이들에게 어이없을 정도로 짧은 어린 시절이 끝나버립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열악하고 어두운 삶 속에 오십 조금 넘어 수명이 다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의 힘든 인생이 마쳐질 때 누군가 그나마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도 저와 함께 했던 식사 때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 식당에서, 자주 보던 두 소녀의 희망과 슬픔을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이 아이들의 가장 행복한 시간 속에 제가 있고, 복음의 기회가 있음이 감사합니다.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돌보며 달려가겠습니다! [GPNEWS]

인도 뭍바이 =원정하 선교사



현장 리포트

11년째 난민으로 사는 시리아 형제들...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다



튀르키예 남부 시리아 난민들을 방문했다. 이들은 11년 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피난을 떠나 이곳 튀르키예 남부에 임시로 정착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수년이 지나면서 겨우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중, 2023년 2월 튀르키예 남부의 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살던 곳에서 또 다시 떠나야 했다. 시리아 북부가 고향인 사람들은 살던 집들이 대부분 파괴돼,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세상에 삶의 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난민들은 조그만 셋집을 얻어서 살거나 텐트에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조그만 셋집도 임대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난민 텐트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다. 매일 일용직 일을 해야 겨우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다.

현실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 지난 일주일간의 전도여행 과정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눈다.

첫째 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착하다

새벽 1시에 집을 떠나 새벽 6시쯤 '이스탄불'에 도착해 국내선을 타고 '아다나'에 도착, 마중 나온 '샤흐'를 만났다. 샤흐는 시리아 난민으로 5명의 자녀와 이곳에서 11년째 살고 있고, 낮에는 난민 형제들을 만나 복음을 나누고 저녁에는 종이박스(폐지)를 모아 생활을 하고 있는 전도에 열정이 있는 형제이다.

둘째 날, 두 가정의 구원을 목도하다

샤흐 형제와 함께 복음이 필요한 시리아 난민 가정들을 방문했다. 오후 3시쯤 방문한 가정은 '함디' 가정이었다. 이웃집에 살고 있는 '무타'도 함께 있었다. 2시간 동안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서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두 가정을 구원하셨다.

셋째 날, 네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다

'알드' 가정을 방문했다. 자녀 8명 중 아들 3명, 며느리 4명, 딸 1

명과 손자, 손녀들이 함께 있었다. 같은 건물에 함께 사는 가족이 모두 18명인 대가족이었다. 모두들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네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

두 번째 방문한 집은 '하무' 가정이었다. 하무는 10명의 자녀가 있고 손주들은 현재 10명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오늘 하무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가족과 딸이 참석했다. 오늘 복음을 들은 두 가정이 주님을 영접했다.

넷째 날,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다

난민들을 만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텐트촌을 찾아갔다. '마무' 가정을 방문했다. 마무 가정은 피난 나온 후 지금까지 11년 동안 이곳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가정은 3년 전 어려움을 겪게 됐다. 큰 아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집을 떠났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 생명을 잃었다. 그 후 둘째 아들이 죽은 형님과 사이에서 두 딸이 있는 형수를 취하고 딸 하나를 더 낳아 지금은 딸 셋을 두고 있는 가정이었다. 오늘 그 며느리와 아들도 참석했다. 두 가정과 자녀들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가정 텐트에 임하게 됐다.

다섯째 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바르카' 가정을 방문했다. 바르카 형제는 믿은지 3년 됐지만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듣는 오디오 성경이 필요한 가정이었다. 바르카 부부와 어머니는 성경을 가르쳐줄 선생을 원했다. 성경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싶어 했다. 오늘 2시간 동안 말씀공부를 했다.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구원의 확신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했다.

오후에 '무스타' 가정을 방문했다. 무스타 형제는 8명의 자녀가 있다. 오늘 무스타 부부와 아들 2명, 며느리 2명, 손주 13명이 모여 있었다. 참석한 세 가정이 모두 주님을 영접했다. 13명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복음을 전했다. 아이들도 모두 기쁨으로 말씀을 외우고 열심히 들었다. [GPNEWS]

튀르키예 이스탄불=요셉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복음의 능력

거듭남의 명확한 징표들

성경은 거듭남의 징표와 증거를 명확히 제시한다. 우리가운데는 자신이 실제로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며 자기 영혼의 건강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당연히 거듭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아시고 요한일서에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셨다. 요한일서는 거듭난 사람의 특성과 행동양식, 즉 삶의 습관과 태도와 믿음과 경행을 설명하고 있다. 거듭난 사람은 첫째,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둘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는다. 셋째, 의를 행한다. 넷째, 같은 신자를 사랑한다. 다섯째, 세상을 이긴다. 여섯째, 주님이 그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이다. 즉, 이 여섯 가지 징표가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GPNEWS]

'거듭났는가 (J. C. 라일)'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절대! 전부의 복음! (13)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큰 비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브라함, 다윗, 바울.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었다. 여호수아 1장 7-9절 말씀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너는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기록한 그대로 행하라.', '오직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대할 때 '절대', '오직 그대로' 이 태도가 아니고서는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다. 마지막이 되면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혼돈하고 복잡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서로 속고 속인다는 것이다. 또 절대 진리가 없다. 그런 상대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혼돈한 세대를 마주할 때에는 '오



일라스트=고은혜

직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딤후 3:14)'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부의 마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씨로 삼으신다. 그리고 이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거룩한 그릇

기들로 세우신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남겨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 절대 믿음, 전부가 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마지막 혼돈과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분명한 일이 있다. 성경 전 역사와 전 존재를

동원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 그것은 병든 자아를 사랑해 오직 유일하게 절대와 전부를 걸고 '나, 나, 나' 하다가 멸망할 소망 없는 우리의 역사를 바꾸신 일이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

라를 이를 주님의 최고의 전략이자 주님의 가장 큰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다(골 1:27).

복음이 나에게 실체가 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되지 않았다. 여전히 내가 전부가 되어 '나, 나, 나'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끈질긴 저주받은 운명을 깨고 하나님의 원형으로 되돌려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절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일한 것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하셨다. 이 땅을 바꾸시는 일에 거룩한 통로가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여질 하나님의 사람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으로 회복하셨다. (2018년 8월) <계속> [GP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헤브론선교대학교

2024 학생모집

복음 성경 학교 < 구약 >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4-5

대상 ▶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배우고 싶은 분
공동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등학교 ▶ 월 저녁 등교 ~ 금 점심 학교 (주중 합숙)

등록금 ▶ 250만원

모집기간 ▶ 2월 24일까지

개강일 ▶ 3월 4일(월)

YouTube [헤브론선교대학교] 검색해주세요!

010.2772.4641

TALK hufm@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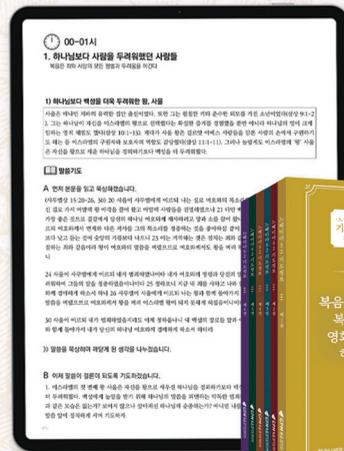


기도24-365

복음과기도미디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았어. 봄에 새싹이 돋을 거야”

누군가 나에게 어떤 계절을 좋아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주저 없이 겨울 빼고 모든 계절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겨울은 나에게 온 자연의 생명들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저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패스하고 싶은 계절이다. 그런 내게 주님은 최근 내 인생에 겨울과 같은 계절을 보내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겨울에 담아 놓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선교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은 공동체라는 환경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통해 옛 자아의 단단한 껍질을 부서뜨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지체들과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맞았다. 처음에는 어려운 관계 속에서 ‘내가 참으면 되지. 괜찮아, 좋아질 거야.’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참고 견뎠다. 사실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해서가 아닌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마음에 어려움을 씌름하는 게 싫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철저한 나를 사랑해서 오는 반응이었다. 그



일러스트=고은선

어려움에서 오는 고통의 시간이 싫어 늘 익숙한 나의 방법으로 피하거나 그냥 덮어 버렸던 것 같다. 그러나 나의 한계선을 넘으면 여지없이 나오는 것은 정죄, 판단, 자기 의로 똥똥 뭉친 교만이 올라왔다.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숨길 수가 없었다. 마치 똥을 실크 보자기로 덮어도 그 냄새는 숨길 수 없듯이 주님은 그 냄새나는 죄된 나의 실존을 철저히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셨다. 고통스러워 도망가고 싶었다. 아니 증발되고 싶었다. 그 끈질긴 마지막 자존심이 악다구니를 쓰며 몸부림쳤다. 그리고 마치 아기가 막무가내로 떼를 쓸 때 힘이 빠져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난 끝났구나. 믿음으로 일어날 힘도 없었다. 도저히 마음을 일으킬 수 없을 그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겨울나무가 보였다. 주님은 “딸아, 겨울나무가 초라해 보이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가지가 살아 있는 것 같니?”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다. “보이는 것은 너무 초라하지만 살아 있잖아요. 봄에는 새싹이 돋을 거잖아요.” 그때 철쭉같이 어두운 심령 안에 진리의 말씀이 비취졌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봄·여름·가을에 보이는

가지의 새싹과 아름다운 꽃, 푸름 가득한 무성한 잎과 무르익은 열매가 어디서 오는지. 매서운 추위와 바람에 모든 것이 사라진 앙상한 가지일 때 비로소 겨울에만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바로 그것은 가지 자체가 아닌 오직 그 가지를 붙들고 있는 생명의 공급처인 나무인 것을 주님은 보게 하셨다. 더 이상 결코 초라한 겨울나무가 아니라 그 생명을 충만히 머금고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무능과 무지와 죄 된 실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며 자랑스런지 알게 됐다. 나의 연약함과 수치가 더 이상 마주하지 못할 두려움이 아니다. 이제는 새 노래가 되게 하신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매서운 바람과 추위가 두렵지 않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생명력이 찬란히 빛나는 아름다운 때, 바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GPNEWS]

김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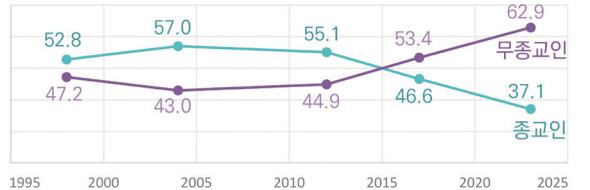
데이터로 보는 한국교회



한국 탈종교화 속 개신교인 청년들 절반 감소

한국사회가 가파르게 탈종교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 인구 중 특히 청년들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밝혔다.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무종교인 비율이 2023년 10월 조사에서 62.9%로 나타나 가장 저점을 찍었던 2004년 43%에 비해 20%p 급증했다.

[그림] 종교 인구 변화 추이 (만 19세 이상, %)



우리나라 3대 종교인 개신교, 불교, 가톨릭 인구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개신교, 불교의 경우 201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개신교는 2012년 정점(22.5%)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 최근 10년 새(2012~2023) 6%p 감소했다. 특히 20대 개신교인은 최근 10년 사이 절반 넘게 감소했다.

[그림] 종교별 인구 변화 추이 (만 19세 이상, %)



세상의 유희를 이기는 믿음의 견고함이 청년의 때에 만들어지도록, 청년 세대에게 영적 갈급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 MZ 세대, 북 체제 싫어 탈북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북한 체제에 대한 MZ 세대의 인식 변화가 이들의 탈북 증가 추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난달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 북한의 수도 평양 주민들. 출처: Release International

한국 통일부는 지난 18일, 2023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96명이었으며, 이중 20~30대가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최근 엘리트 계층과 MZ 세대의 탈북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동안 20~30대 탈북민이 전체 입국자의 50% 이상을 웃돌았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2011년 16살에 탈북한 김일혁 씨는 22일 RFA에 “MZ 세대 탈북민들이 증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젊은 청년들이 북한 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기회가 적어 해외 과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과거에는 ‘식량난’ 때문에 탈북한 비율이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한 비율보다 근소하게 높았는데, 최근에는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한 사례가 더 앞서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12월, 북한 사회에서 특히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경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고 한국식 말투와 노래 등을 따라하거나 한국 영상물을 수입, 유포하는 경우 처형할 것이라며 외부 정보

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하지만 이미 생각과 인식이 바뀐 MZ 세대에게 더 많은 외부 정보가 유입될수록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지난해 북한에서 어린이 등 13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했다고 지난달 26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지원으로 지난해 북한에서 3월과 10월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어린이 59만 4000명에게 소아마비 백

신을 접종하고 50만 명의 어린이에게 소아결핵(BCG)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역 백신은 15만 4000명,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B형 간염 등을 예방하는 혼합백신은 5만 명의 어린이에게 각각 접종됐다고 덧붙였다. 유니세프 동아태 지역 대변인은 “지금 현재 수많은 백신 재고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을 북한

북한의 MZ 세대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들의 탈북 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PNEWS]

지난해 북한 주민 130만 명에 백신 접종

신을 접종하고 50만 명의 어린이에게 소아결핵(BCG)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역 백신은 15만 4000명,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B형 간염 등을 예방하는 혼합백신은 5만 명의 어린이에게 각각 접종됐다고 덧붙였다. 유니세프 동아태 지역 대변인은 “지금 현재 수많은 백신 재고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을 북한

으로 반입하기 위해 북한 보건성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한에서 철수한 유니세프는 북귀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전면적인 국경 개방 시기는 북한 당국에 달렸다.”고 말했다. [GPNEWS]





‘나팔수의 휴일’... 믿음으로 힘차게 나팔 불며 행진하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세대를 선교사로 양성하는 기독교가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섬기게 됐다. 그러다 보니 푸르고 활기차게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난 봄학기를 지난 무렵 우연히 한 주간을 마감하는 학교의 전체 종례를 지켜보게 됐다. 교감 선생님은 돌 단 위에 올라서 있었고, 전체 학생들은 줄을 맞추어 곧은 자세로 서서 한 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교감 선생님은 종례를 마무리하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경례!”를 외쳤고 아이들은 거수경례를 하며 “복음!”으로 화답했다. 우렁찬 경례 소리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제법 군사다워 보여 멋있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모습, 이곳 학교의 풍경이 내 마음 속에 스케치로 남는 순간이었다.

한 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나비처럼 가벼워 보였다. 진리의 터 위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돌아간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한 쉼을 만끽하기를. 다만, 나른함과 게으름에 자신을 방임하지 말고 더욱 깨어 믿음으로 서기를...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중한 다음세대 선교사들을 응원하는 짧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 드렸다.

언덕을 내려가는 즐거운 뒷모습을 지켜보던 그때 떠오르는 음악이 있었다. 리로이 앤더슨(Leroy Anderson)의 나팔수의 휴일(Bugler's Holiday)이라는 작품이다. 리로이 앤더슨은 정통 클래식보다는 경쾌하고 재치 있는 관현악 작품을 주로 작곡한 20세기 미국 작곡가이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나팔수의 휴일(1954)은 독주 트럼펫 3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멋진 곡이다. 나팔이란 뜻의 bugle(부글), 여기서 나팔수는 아무래도 군인일 것이다. 정해진 일과에서 해방된 나팔수들은 한껏 신이 나서 경쟁적으로 각자의 솜씨를 자랑하듯 빠른 속도로 나팔을 불어댄다. 때때로 셋이 아니라 더 많은 나팔수들을 무대에 세우는가 하면 악보에 표시되지 않은 유머를 가미하기도 한다.

휴일이 되어 지긋지긋한 일에서 벗어났다면 에너지를 방전시켜 버리는 늘어짐이 아니라, 더 나은 결실을 위해 기꺼이 충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휴일에 대한 의미도 이 음악 속에 숨어 있는 것 같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존재의 시작



▲ 리로이 앤더슨(Leroy Anderson)의 나팔수의 휴일(Bugler's Holiday)을 연주하는 미국 육군 밴드의 모습. 출처: 유튜브 채널 National Trumpet Competition 캡처

을 그분 안에서의 쉼으로 허락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휴일에 오히려 더욱 신나고 자발적인 연주로 나팔을 잡는 나팔수의 휴일을 들으며 정해진 사역과 약속된 일정이 없는 휴일에 더욱 나만의 나팔을 하늘을 향해 불어 보리라 결단하게 되었다.

주말에는 자녀들과 함께 복음기도신문과 전도지를 들고 함께 전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한다. 또 주일에는 예배함으로

안식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움 받고 더욱 풍성히 받는다. 그렇게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힘차게 행진하게 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영원한 삶이 참 행복임을 깨닫게 된다.

지금 긴 겨울 방학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쫄쫄 얼어붙은 이 계절의 끝은 반드시 찾아올 생동하는 봄이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과 기도로 사랑하는 주님과 열방을 향해 믿음으로 힘찬 나팔을 불며 예배하다

가 개학 때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길 기대해 본다. 이곳 학교의 다음세대 선교사들을 비롯한 열방의 모든 다음세대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행복한 복음과 기도의 나팔수로 삼아 주실 주님께 다시금 기도로 나아간다! [GPNEWS]

이혜진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영화 ‘건국전쟁’, 이승만의 진면모 밝혀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도움



▲ 1954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처음 이곳에서 이뤄진 카 퍼레이드 현장의 이승만 대통령. 출처: 다크스토리 제공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재조명한 영화,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이승만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온 우리 사회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좌익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역사관, 가치관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 가운데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듬해인 1954년 미국을 방

문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아닌 외국의 국가원수로서는 처음 뉴욕 맨해튼의 ‘영웅의 거리’에서 카 퍼레이드를 한 영상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음을 밝혀낸 기록영화가 등장했다. 2월 1일 전국 145개 극장에서 개봉된 ‘건국전쟁’이다.

이 영화를 제작한 김덕영 감독은 지난 2021년 ‘김일성의 아이들’을

제작, 뉴욕세계영화제, 니스국제영화제 등 세계 15개 국제영화제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되고 로마무비어워드에서 최우수 다크멘터리 작품상, 동유럽국제무비어워드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김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며 북한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들이 저지른 온갖 범죄의 역사들을 되돌아보게 됐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다. 북한에서 이승만은 반드시 제거돼야 할 존재로 여기며, 지금껏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도대체 왜 이승만 정권이 무엇이길래 북한이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을까? 또 왜 6.25전쟁 정전 70년 동안 남한 좌파들과 합세해서 몰아내려고 했을까?

김 감독은 “그 이승만의 실상을 영상에 담자는 심정으로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김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는 동안 늘 누군가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김 감독은 또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어두운 면, 잘못된 면만 부각하고, 심지어는 ‘살인자’나 ‘독재자’의 이미지로 덧칠해온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이 영화가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대통령의 역사적 공헌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 청년 이승만이 일제점령기 시절, 독립운동에 투신할 때부터 가난한 민중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미국 유학을 통해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그의 모습을 조명했다.

김 감독은 특히 “이승만의 역사는 거짓과 진실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이승만의 복원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4. 1. 16 ~ 1. 30 (가나다 순)

개인

김애심 김혜신 안수경 이보희 이종훈 장근혜 정영배 정옥영 정요한 조복형 최영석 무명

교회 및 단체

꿈꾸는교회 나죽고예수사는교회 목자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예수생명교회 오예그교회 참종양더라교회 함안순복음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press@gpnews.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